

한-케냐 인프라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7월 4~5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1USD)	129	129	2025.7월
인플레이션(%)	3.8	3.8	2025.6월
CPI(points)	146	145	2025.6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.12월

출처:trading economics

○ 미국 단속 여파로 6월 해외 송금 감소 - 케냐 경제에 부담¹⁾

- 2025년 6월 케냐로의 디아스포라 송금이 전월 대비 KES 21억 감소 하며 3.86% 하락, 가계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.
- 이번 하락은 케냐의 최대 송금 유입국인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 추진 중인 송금세 신설 추진과 이민 단속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2025년 6월 송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.8% 증가했으나, 월간 감소 세는 외환시장 안정과 가계 소득 유지에 있어 송금이 갖는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우려를 낳고 있음.
- 이번 감소는 루토 대통령이 2024년부터 추진해온 해외 노동자 수출 및 외화 확보 전략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, 약 400만 명의 해외 거주 케냐인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.

○ 중동 분쟁 속 유가 급등: 1년 만에 최대 상승폭²⁾

- 이스라엘-이란 간 분쟁 속에서 에너지·석유규제국(EPRG)은 연료 가

1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financial-standard/article/2001524269/economy-feels-the-pinch-as-june-inflows-drop-sh21b>
 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petrol-price-rises-by-sh8-99-a-litre-on-israel-iran-war-5118130>

격을 인상함.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KES 8.99 상승해 KES 186.31, 디젤은 KES 8.67 올라 KES 171.58, 등유는 KES 9.65 인상되어 KES 156.58을 기록.

-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 운항 불안으로 유조선들이 우회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원유 운송비 및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.
- 부가가치세(VAT), 도로유지세(Road Maintenance Levy) 등 고정 프리미엄 및 국내 세금 부과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 가격이 더욱 상승함.
- 이번 급등은 최근 1년간 가장 큰 폭이며, 생활비 상승에 따른 대중 불만 고조 가능성이 제기됨. EPRA는 향후 물가 부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.

○ 케냐, 7월 중 외채 680억 실링 상환 예정³⁾

- 케냐 정부는 2025년 7월 중 외채 KES 680억을 상환할 예정이며, 주요 상환 대상은 유로본드(Eurobond) 이자와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관련 차관임.
- 상환 내역에는 2027년 만기 유로본드에 대한 2억 1,000만 달러 규모의 반기 이자 지급과, 표준궤철도(SGR)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중국 대출기관에 대한 주요 부채 상환이 포함됨.
- 이번 상환은 정부의 재정이 여전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, 현재 IMF 프로그램 하의 재정 긴축 및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.
-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, 양허성 차관 확대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전략을 추진 중임.

○ 남아공, 아프리카 대형 프로젝트 자금 지원 위해 글로벌 은행 규제 완화 촉구⁴⁾

-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약 85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스탠다드 은행

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to-repay-sh68-billion-foreign-debt-this-month-5113408>

4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sa-roots-for-relaxed-global-bank-rules-for-african-lenders-5114946>

(Standard Bank)과 같은 아프리카계 은행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바젤 III(Basel III) 자본 요건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.

- 해당 제안은 위험가중자산(RWA)에 대한 자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, 은행들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.
-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프리카 전역의 경제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재정 건전성과 신용등급 개선을 보장해야 하며,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.
- 아프리카는 매년 약 1,700억 달러의 인프라 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조달되고 있으며, 은행 규제 완화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재정 수입 부진 지속...케냐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 차질 우려⁵⁾

- 케냐 국세청(KRA)은 2024/25 회계연도 동안 개정 세입 목표액(KES 2조 3,050억)에 미달하여, KES 2조 2,570억만을 징수해 KES 473억의 세입 부족액을 기록함. 이는 세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목표 미달 사례임.
- 이러한 세수 부족은 총공공부채가 KES 11조 5,100억에 이르고, 2025~2027년 간 KES 1조 5,000억 이상의 외채 상환 부담이 예정된 가운데,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음.
- 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서명된 「2025년 재정법(Finance Act 2025)」내 세제 강화 조치들이 라퍼 곡선(Laffer Curve) 이론에 따라 오히려 조세 순수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. 세율 인상이 납세 순응도 및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총세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.
- 이에 대응해 KRA는 조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며, 지속적인 세수 부족 시 정부는 긴축 재정, 추가 차입, 혹은 공공 프로젝트 지연 등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5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4904/kras-sh473b-tax-shortfall-hits-rutos-economic-agenda-amid-fiscal-strain>

○ 케냐 개혁 지연으로 세계은행, KES 970억 재정 지원 집행 보류⁶⁾

- 세계은행은 케냐 정부의 구조개혁 이행 지연을 이유로, 약 KES 970억 규모의 예정된 재정 지원 자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음.
- 해당 개혁에는 거버넌스 개선, 공공재정 관리, 부채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다년간 보증 체계 하에서 추가 차관 실행을 위한 사전 조건으로 설정된 사항임.
- 자금 지원의 보류는 케냐 정부의 2025/26 회계연도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특히 인프라 구축, 사회복지 프로그램, 채무 상환 등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- 케냐 정부는 재정 투명성 강화, 반부패 체계 마련, 공공부문 조정 등 입법 및 정책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, 이를 통해 세계은행의 자금 집행 재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○ 국영기관, 중국 대출 상환 연체... KES 28억 유휴 자금 보유에도 불구하고⁷⁾

- 케냐의 국영기관이 KCB은행에 KES 28억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대외차관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드러나 납세자에게 상당한 벌금 부담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.
- 해당 자금은 정채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배정된 것이었으나, 관료적 절차 지연 및 계약 분쟁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채 유휴 상태로 남아 있었음.
- 중국 측은 고금리 부과, 자산 압류 등 제재 조치를 경고하며, 양국 간의 외교 및 재정 관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감사 기관은 외채 상환 시스템의 책무성 미비를 지적하며, 향후 연체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함.

○ 영국 해외 원조 예산 삭감, 아프리카 개발 및 인도적 지원에 우려 확산⁸⁾

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world-bank-freezes-sh97bn-to-kenya-on-reforms-fallout-5129344>

7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tate-firm-defaults-on-china-loan-with-sh2-8bn-idle-in-bank-5129378>

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africa/2025-07-23-africa-to-be-hit-hard-as-uk-foreign-aid-cuts-revealed>

- 영국 정부는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해 해외 원조 비율을 국민총소득(GNI)의 0.5%에서 0.3%로 줄이는 40% 삭감을 발표함.
- 이번 삭감은 아프리카 지역, 특히 여성 건강, 식수 및 위생, 아동 교육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질병 확산 및 사망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국제 개발 비정부기구(Bond)를 비롯한 지원 단체들은 남수단, 에티오피아, 소말리아 등 분쟁 및 빈곤 지역 내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.
- 양자간 원조는 대폭 축소되는 반면, 세계은행(World Bank), 가비(Gavi) 등 다자간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될 예정으로, 이는 영국의 원조 정책이 국내 정치 및 재정 압박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함.

② PPP 관련 동향

- 케냐, 키수무-말라바 SGR 구간 민영화 추진… 효율성 제고 및 역내 통합 가속⁹⁾
 - 케냐 정부는 표준궤도철도(SGR) 키수무-말라바 구간의 운영을 민영화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민간투자 유치를 도모함.
 - 나이바샤-키수무-말라바 구간의 건설은 9월 착공 예정이며, 현재 자원 조달 협의와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.
 - 정부는 SGR의 일부 구간을 상업화하고, 민간이 차량 운용 및 화물 운송 운영권(컨세션)을 담당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.
 - 약 50억 달러(약 KES 6,450억) 규모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우간다, 콩고민주공화국(DRC)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추진되며, 동아프리카 지역을 잇는 철도 물류 회랑 조성의 핵심축이 될 전망.
- 규제·환경 요건 미충족으로 KES 3,370억 하이 그랜드 폭포 댐 사업 중단¹⁰⁾
 - 재무부는 타라카 니티(Tharaka Nithi) 카운티에서 추진 중이던 KES 3,370억 규모의 하이 그랜드 폭포(High Grand Falls) 댐 사업을 민관

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tate-to-privatise-part-of-kisumu-malaba-sgr-line-5118430>

10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24339/state-terminates-sh337-billion-high-grand-dam-project-in-tharaka-nithi>

협력법(PPP법)에 따른 주요 타당성 및 규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공식 중단함.

- 본 프로젝트는 1,000MW 규모의 수력 발전 및 대규모 관개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, 제출된 사업개발보고서(Project Development Report)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.
- 환경 단체들은 생물다양성 훼손, 수자원 수요, 하류 생태계 및 주민 영향 등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고,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의 추가 심사가 이뤄짐.
- 재무부는 향후 개정된 사업안과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본 프로젝트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힘.

○ 케냐항만청(KPA) 사장, 일본 지원 SEZ 사업 입찰 비리로 고등법원 제소¹¹⁾

- 케냐항만청(KPA) 윌리엄 루토(William Ruto) 사장이 일본 TOA 코퍼레이션(TOA Corporation)에 몸바사 특별경제구역 관련 KES 312억 규모의 입찰이 불투명하게 낙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, 시민활동가 프란시스 아위노(Francis Awino)가 고등법원에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공식 제출함.
- 해당 청원에서는 KPA가 조달법 및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의 자금지원 조건을 위반했으며, 현지 업체 배제 및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함.
- 아위노는 KPA 전기부 내 고위 간부들이 리베이트 수수, 이중 지급,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등 광범위한 부패 관행이 존재함을 고발함.
- 그는 헌법 제6장(공직자 윤리 조항)의 위반을 이유로 루토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, KPA의 조달 절차 전반에 대한 포렌식 감사 및 형사 수사를 촉구하고 있음.

○ 케냐 정부의 '100대 대형 댐 건설' 공약, 재정 부족 및 PPP 추진 차질로 난관 직면¹²⁾

- 에릭 무가(Eng. Eric Mugaa) 수자원·위생·관개부 장관은 정부가

11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4412/activist-sues-kpa-boss-over-sh31b-tender-to-japanese-firm/#google_vignette

12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7-16-why-100-mega-dams-promised-by-state-arent-complete-cs-mugaa>

공약한 100개의 대형 댐 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례가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으며, 심각한 재정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.

- 대부분의 사업이 민관협력(PPP)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, 수자원 부문의 수익성 저조 및 높은 수도요금 부담으로 인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.
- 부차(Bucha), 파우치(Fauci), 움(Um) 등 일부 대형 댐이 건설 중이나 현재까지 완공된 사례는 없으며,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 댐은 더 나은 진척을 보임.
- 정부는 본 댐 사업들을 통해 강우 의존형 농업에서 관개 중심 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식량 안보를 개선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, 현실적인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.

○ 피터 문가, 나이로비-몸바사 간 고속도로 PPP 사업에 참여...미국계 컨소시엄과 KES 4,680억 규모 추진¹³⁾

- 케냐의 저명한 사업가 피터 문가(Peter Munga)는 자신의 키에와 그룹(Kiewa Group)을 통해, 미국계 에버스트롱 캐피탈(Everstrong Capital)과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퀵패스(Quickpass Ltd)의 지분 50%를 보유하고 있으며, KES 4,680억 규모의 나이로비-몸바사 고속도로 PPP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음.
- 총 연장 440km에 이르는 해당 고속도로는 민간이 건설·운영한 후 정부에 이관하는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의 30년 유료도로 모델로 추진되며, 양 도시 간 이동 시간을 4.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케냐 도로청(KeNHA)과 PPP 위원회는 당초 제출된 사업개발 보고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며, 이로 인해 사업의 승인 및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.
- 한편, 정치적 연계 인사의 참여와 모리셔스 기반 구조 활용이 밝혀지며 실질 수익자(UBO)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, 지지자

1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companies/billionaire-munga-links-to-sh468bn-new-expressway-5120842>

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인프라 확충과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.

○ 2025 레이크 리전 정상회의: PPP와 투자 유치로 KES 3조 규모 지역 변혁 전인 전망¹⁴⁾

- 오는 8월 키수무(Kisumu)에서 개최 예정인 ‘2025 비즈니스 생태계 정상회의(Business Ecosystems Summit, BES)’는 케냐 서부 전역의 전략적 투자 기회를 선보이며, 총 KES 3조(약 230억 달러) 규모의 투자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레이크 리전 경제블록(Lake Region Economic Bloc, LREB)의 주요 리더들은 청정에너지, 기후 스마트 농업,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의 전략적 민관협력(PPP)을 지역 경제 회복력 강화의 핵심으로 강조했음.
- 키수무 카운티는 빅토리아 호수와 물류·관광·농산업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투자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음.
- BES 2025는 2023년 아프렉심은행(Afreximbank)과 체결한 3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(MoU)를 포함한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꾀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서부 케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변혁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MTRH, 의료인력 양성 확대 위해 PPP 방식 도입 추진¹⁵⁾

- 모이 교육 및 전문병원(MTRH)은 의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파트너를 유치하는 민관협력(PPP) 방식을 도입하여 현대식 의학 교육기관 건립을 추진 중임.
- 본 사업은 임상 실습과 보건 교육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 신축을 포함함.
- MTRH 측은 해당 교육기관이 지역 내 보건 전문 인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향상에 기

14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lake-region-business-summit-showcases-high-impact-projects/>

1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moi-referral-eyes-ppp-project-to-boost-its-students-intake-5125334>

여할 것으로 기대함.

-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한 보건 분야 인프라 확대라는 국가 보건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.

○ KETRACO-중국 시공사 간 KES 200억 규모 분쟁, 중재 절차로 이관¹⁶⁾

- 케냐 전력송전공사(KETRACO)는 전력 송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 시공사와 총 200억 케냐 실링(KES) 규모의 계약 분쟁에 직면해 있음.
-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을 중재 절차로 이관하며, 소송에서 상업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함.
- 중재 절차에서는 양측의 청구 및 반론이 검토될 예정이며, KETRACO는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출받고자 함.
- 본 조치는 인프라 조달 관련 분쟁을 계약 및 민관협력(PPP) 체계에 따라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추세를 반영함.

○ Tullow Oil, 전략적 자산 구조조정 일환으로 케냐 석유 자산을 걸프에너지에 1억 2,000만 달러에 매각¹⁷⁾

- Tullow Oil은 남로키차르 분지(South Lokichar Basin)를 포함한 케냐 내 자산을 케냐의 걸프에너지(Gulf Energy Ltd) 계열사인 오론에너지 E&P(Auron Energy E&P Limited)에 최소 1억 2,0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함.
- 대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, 계약 완료 시 4,000만 달러, 유전개발계획(FDP) 승인 시점 또는 2026년 6월까지 4,000만 달러, 2028년 3분기부터 향후 5년간 추가 4,000만 달러가 지급됨.
- Tullow는 향후 개발단계에 대해 30% 재참여(back-in) 권리를 보유하며, 조건부 로열티 수익도 확보할 예정임.
- 본 거래는 Tullow의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부채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, 2025년 총 자산 매각 수익을 약 3억 8,000만 달러로 예상, 수익성이 높은 서아프리카 자산에 집중할 계획임.

1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companies/sh2bn-ketraco-and-chinese-firm-row-sent-to-arbitration-5122036>

17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tullow-sells-kenyan-assets-including-oil-resources-to-gulf-energy/>

○ G7, 케냐 철도 개발사업 공동 지원…중국 BRI 견제¹⁸⁾

- 영국, 미국, 일본, 프랑스를 포함한 G7 국가들이 케냐의 나이로비 철도 이니셔티브(Nairobi Railway Initiative)를 공동 지원하며, 이는 도시 혼잡 완화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(BRI: Belt and Road Initiative)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임.
- 이 사업은 케냐의 도시 종합계획(Urban Master Plan)에 부합하며, 주요 프로젝트로는 레일웨이시티(Railway City) 역, 통근 철도 노선, 비자동차 교통 시스템(NMT)이 포함되며, 각국이 개별 구간을 맡아 지원하고 있음.
- G7이 추진 중인 ‘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(PGII)’은 전 세계적으로 6,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인프라 대안을 제공할 예정이며, 케냐의 교통 현대화가 주요 수혜 대상임.
- 한편, 중국도 나이로비 고속도로(Nairobi Expressway) 완공과 Thika 슈퍼하이웨이 내 BRT 시스템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로비의 도시 교통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○ 엠부 카운티 Thuci 댐 사업, KES 7.05억 규모 PPP로 재가동¹⁹⁾

- 관개부(Ministry of Water, Sanitation & Irrigation)는 기존 EPC-F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-민간 파트너십(PPP) 형태로 엠부(Embu) 카운티의 총 KES 7억 500만 규모 ‘투스 댐(Thuci Dam)’ 사업을 공식 재추진함.
- PPP 구조 하에서는 민간 파트너가 설계(Engineering), 조달(Procurement), 시공(Construction), 금융(Financing) 및 향후 운영(Operation)을 담당하며, 관개부는 규제·감독에 집중할 계획임.
- 본 프로젝트의 재추진은 중소형 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수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에 부합함.
- 현재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며, 본격적인 조달 및 자금 조달 단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.

1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7-23-g7-states-counter-china-road-project-to-decongest-city>

1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h705-million-thuci-dam-in-embu-revived-as-ppp-project-5127652>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- 케냐, 원자력에너지 로드맵 본격 추진... 산업 성장 및 저탄소 전력 확보 위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²⁰⁾
 - 케냐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, 이를 산업화 촉진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.
 - 국가 원자력 규제청(KNRA)과 케냐 원자력 및 에너지청(Nupea)은 규제 체계 정비, 국민 대상 인식 제고 활동,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(SMR)의 도입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전 상황을 보고함. 이는 급증하는 국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.
 - 정부는 첫 원자력 발전소에서 1,000메가와트(MW) 규모의 전력 확보를 목표로,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국제적 안전 기준 및 기술 혁신 기준에 부합시키려 노력함.
 - 각 카운티 정부들도 장기 에너지 계획에 통합되었으며, 원자력 에너지가 분산형이고 포용적인 개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.

- 북부회랑 회원국, 케냐·우간다에 철도 개발 신속 추진 촉구²¹⁾
 - 북부회랑(Northern Corridor) 회원국들은 지역 무역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해 케냐와 우간다에 표준궤 철도(SGR)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.
 - 케냐 나이바샤(Naivasha)에서 우간다 국경까지 SGR 연장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화물 운송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받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운송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도로 운송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 - 르완다, 남수단, 콩고민주공화국(DRC)은 무역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케냐와 우간다가 명확한 일정과 확고한 이행 의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 -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양국 간의 자원 조달 불확실성과 사업 추진

20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4262/state-agencies-pitch-nuclear-energy-to-power-industrialisation>

21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northern-corridor-states-pressure-kenya-uganda-expedite-railway-5120184>

단계에서의 조정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다 강력한 역내 협력과 인프라 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함.

○ 우간다-탄자니아 원유 파이프라인, 자금 및 환경 문제 속 최종 건설 단계 진입²²⁾

- 약 USD 36억이 투입된 우간다-탄자니아 원유 파이프라인(EACOP) 사업이 향후 12개월 간의 최종 건설 단계에 돌입하였으며, 2026년 중반까지 준공 및 첫 원유 수송 개시를 목표로 함.
- 우간다 킬렝가(Tilenga) 및 킹피셔(Kingfisher) 유전에서 탄자니아 탕가(Tanga) 항만까지 총 연장 1,443km의 가열식 파이프라인 중 50% 이상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, 자원 조달 지연과 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.
- 환경 및 인권 관련 우려로 인해 서방권 주요 은행들의 자금 지원이 철회됨에 따라 토탈에너지(TotalEnergies), 우간다 및 탄자니아 정부는 자본금 출자를 확대하고, 중국 및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체 금융 조달원을 모색하고 있음.
- 환경단체들은 본 프로젝트가 양국의 생태계, 생물다양성,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는 반면, 양국 정부는 본 사업이 역내 수익 창출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경제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함.

○ 동아프리카 전력 연결망: 탄자니아, 케냐 Isinya-Singida 송전선 통해 100MW 전력 수입 예정²³⁾

-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전력공동체(Eastern Africa Power Pool) 하에서 역내 전력 공유 강화를 위해 케냐를 통해 최대 100MW 전력을 수입하는 계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.
- 이번 전력 수입은 400kV 고압 송전선인 이시냐-싱기다(Isinya-Singida) 간 연결선을 통해 이뤄짐. 해당 송전선은 2024년 초부터 시험 운전

22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uganda-tanzania-pipeline-enters-last-12-month-sprint-5115574>

2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tanzania-to-seal-power-import-deal-with-kenya-5125360>

들어갔으며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음.

- 본 계약은 전력 수요 증가 및 역내 신규 전력 구매계약(PPA) 중단 상황 속에서 탄자니아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함.
- 완전 가동 시, 본 계약은 동아프리카 전력공동체의 역내 저비용 전력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에 기여할 전망이다.

○ Kiambu 도로 확장사업, KeNHA의 입찰 취소로 중단²⁴⁾

- 케냐 고속도로청(KeNHA)는 중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적격 심사 입찰 공고를 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키암부(Kiambu) 도로 확장 사업을 돌연 중단함.
- 중국 수출입은행(EXIM Bank)의 재정 지원 약속을 확보한 본 사업은 기존 2차선 단일 차로를 4차선 복선 고속도로로 확장하고, 병행 차로 및 보행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었음.
- KeNHA는 입찰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, 고도의 재정·기술 요건을 요구했던 사전적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류됨.
- 이 프로젝트는 나이로비 동부 대도시권의 무타이가(Muthaiga), 키암부(Kiambu), 은둠베리(Ndumberi) 등 주요 통행 축의 교통 혼잡 완화를 기대받고 있었음.

○ 루토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로 예산 증액²⁵⁾

- 2024/25 회계연도에 케냐 재무부는 도로 건설 예산을 KES 1,380억에서 KES 1,540억으로 증액 편성함. 이는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증액 조치임.
- 이번 예산 증액은 그간의 예산 삭감을 되돌리는 조치로, 나이로비-나쿠루-마우서및 고속도로 등 주요 중단된 사업 재개에 초점을 맞춤.
-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성장 기반 인프라 완공 압박과 연결 지으며,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함.
- 건설 업체는 이번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과거 연

24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7-22-why-kiambu-road-expansion-is-in-limbo>

2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annual-roads-spend-rises-for-first-time-since-ruto-took-office-5127844>

도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경고함.

4 정치 동향

- 변화하는 정치 지형 속 케냐, 주요 보궐선거 준비 돌입²⁶⁾
 - 2023년 1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독립선거구획정위원회(IEBC)의 재구성됨에 따라, 케냐는 다수의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.
 - 이번 선거는 사망, 선거 무효 판결, 장관 임명 등으로 공석이 된 바링고(Baringo), 바니사(Banisa), 마가리니(Magarini), 우군자(Ugunja), 말라바(Malava), 음베레 노스(Mbeere North), 카시풀(Kasipul) 등의 선거구 및 전국 15개 지방구를 대상으로 실시됨.
 - 윌리엄 루토 대통령, 리가디 가차과 전 부통령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2027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영향력 시험대로 간주하고 있음.
 -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조기 고조되고 있으며, 경쟁 진영 간 개입 의혹과 전략적 세력 다툼이 심화되고 있음.

- 선거 조작 관련 발언에 대한 정치권 비판 고조²⁷⁾
 - 케냐 정치인들이 선거 조작에 대한 무책임한 주장으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,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.
 - 야당과 여당 지도부 모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, 이로 인해 대중의 불안 및 사회적 혼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 - 독립선거구획정위원회(IEBC)는 정치인의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, 선거 관련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함.
 -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행이 폭력을 유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,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.

26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24205/with-iebc-in-place-country-prepares-for-mini-elections#google_vignette

27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politicians-on-the-spot-over-reckless-poll-rigging-talk-5118478#story>

○ 보궐선거, 루토·라일라·가차과 정치적 입지의 풍향계로 주목²⁸⁾

- 케냐 전역 여러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보궐선거는 2027년 총선을 앞두고 윌리엄 루토 대통령, 라일라 오딩가, 리가티 가차과 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음.
- 루토는 지지세 유지, 오딩가는 영향력 확장을, 가차과는 지역 기반 강화를 목표로 활발한 지지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.
- 이번 선거는 여당 연합과 야당에 대한 '미니 국민투표'로 간주되며, 향후 정치 구도 재편 가능성까지 제기됨.
-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 변화, 신흥 정치 동맹, 각 지도자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.

○ 루토 대통령: 과도한 공약 아닌, 국가의 야망을 높인 것²⁹⁾

-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, “과대 약속(overpromise)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와 야망을 상향 조정한 것” 이라고 반박함.
- 마차코스(Machakos)에서 열린 교회 주교 임명식 연설에서 루토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, ‘카지 르타아니(Kazi Mtaani)’ 일자리 프로그램 등 주요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.
- 그는 경제 지표 개선과 성장 추세를 강조하며, 자신의 정책이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함.
- 루토는 “공약이 공허하다” 고 비판한 이들을 “부끄럽게 만들 것” 이라고 직격하며,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함.

○ 법원, 키암부 수출가공지대(EPZ) 사업 중단 명령 - 주민 협의 부족 지적³⁰⁾

- 케냐 환경·토지법원(Environment and Lands Court)은 키암부(Kiambu)

28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by-elections-test-for-ruto-raila-gachagua--5120896#story>

29)

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ruto-i-didn-t-overpromise-i-raised-kenya-s-ambition-5125104#google_vignette

30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politics/blow-to-ruto-s-plan-as-court-halts-kiambu-epz-project--5127102#story>

카운티의 전 델몬트(Del Monte) 부지(약 324.5에이커)에 조성 예정이던 수출가공지대(EPZ)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 협의 및 공공 참여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림.

-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입찰 및 토지 양도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실질적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함.
- 중단된 EPZ는 지역 고용 창출, 경제 개발 촉진, 수출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한 ‘키암부 모델’ 개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음.
- 이번 판결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사업 전개 시 사전 협의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, 향후 사법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함.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High Grand Falls Dam Project³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케냐 재무부 (민관협력사업 PPP 체계)
- (도 급 사) 영국 GBM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(Power China 및 Portugal's RCP Irrigation 공동 참여)
- (사 업 비) KES 337 billion (~USD 2.6 billion)
- (편 당) GBM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및 파트너사들이 참여하는 30년간의 민간투자형 건설-운영-양도(BOT) 방식 PPP를 통한 민간자금 조달
- (사업내용)
 - 타나강 키부카 폭포(Kibuka Falls)에 대형 중력식 댐 건설 예정
 - 693MW 발전 용량(최대 1,000MW까지 확장 가능) 및 56억 m³의 저수 용량 확보, 약 40만 에이커에 달하는 관개 농업 지원
 - kWh당 0.08달러의 전력 공급 예상, 이는 기존 추정치인 0.12달러보다 비용 효율적인 수준
- (추진현황)
 - 2023년 5월: 본 민관협력(PPP) 사업 제안은 예비타당성조사(Feasibility Study) 단계로 진입함.
 - 2025년 7월 2일: 재무부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상 「민간투자법(PPP법)」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함.

○ (주요상황)

- 사업 종료 결정: 재무부는 타당성조사보고서가 관련 법률 및 규제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「민관협력법(PPP법)」 제43조 제11항 (c호)에 근거해 사업을 종료함.
- 사업 재추진 가능성: 이번 종료 결정은 타당성 요건이 개선될 경우,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둠.
- 지역적 중요성: 본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, 키투이(Kiutui) 및 트라카 니티(Tharaka Nithi) 카운티 전역에 걸쳐 수력발전 용량 확대, 관개 농업 지원, 수자원 관리 개선 등 중대한 지역 개발 효과가 기대됨.

31) https://pppkenya.go.ke/ova_por/high-grand-falls/?utm_source

② Thwake Multipurpose Dam Project³²⁾

< 사업 개요 >

- **(발 주 처)** 케냐 수자원·위생·관개부, 타나시 수자원 서비스 위원회(Tanathi Water Services Board) 공동 참여
- **(도 급 사)** China Gezhouba Group Company (EPC 시공사)
- **(사 업 비)** 약 KES 37 billion (~USD 634 million)
- **(편 당)** 재원 조달 기관: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중국인민은행(아프리카공동성장기금), 케냐 정부
- **(사업내용)**
 - 1단계: 댐 본체, 여수로, 하천 우회 터널, 취수 및 방류 시스템, 초기 저수지 담수 작업 포함됨.
 - 향후 단계: 정수 시설, 급수 및 분배 시스템, 수력 발전(약 20MW), 관개망(약 40,000헥타르)이 포함될 예정.
- **(추진현황)**
 - 2018년 3월: 사업 공식 착수
 - 2021년 중반: 전체 재원의 40% 이상 집행, AfDB 실사단은 사업의 시급성 강조
 - 2023년 말: 제체 공사, 2024년 중반 준공 예정
 - 2025년 6월: 1단계 준공 시점 2025년 10월로 연기, 전체 구조물 공정률 약 94%
 - 현재 진행: 향후 단계(발전, 배수, 관개망 등)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작업 지속 중
- **(주요상황)** 댐 건설 공정률 약 94% (댐 제체 약 68%, 여수로 약 85%, 취·방수 시설 약 40%). 여수로는 사실상 완료되었으나, 취·방수 시설은 상당히 지연된 상태. 1단계 준공 시점, 당초 2024년 2월에서 2025년 10월로 연기, 재원 부족 및 기술적 문제(e.g. 하상 기초 약화)로 인함. 시공사(CGGC)는 하도급 분쟁 및 법적 소송 등 법적·재정적 문제에 직면,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팀과 협의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모 중.

32) <https://www.afdb.org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environmental-and-social-assessments/kenya - thwake multi-purpose dam project - esia summary.pdf>

③ Thuci Dam, Embu³³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케냐 수자원·위생·관개부(국가관개청을 통해, EWASCO 경유)
- (도급사) 민관협력(PPP) 방식 하에 EPC-F 모델로 조달 예정
- (사업비) 약 KES 7억 500만(약 545만 달러)
- (편당) EPC-재정-운영-이전(EPC-Finance-Operate-Transfer) 방식의 민간 투자자를 통해 자금 조달 예정
- (사업내용)
 - 엠부 카운티 루넨제스 지역의 투치(Thuci)강에 건설되며, 약 10만 6,000명에게 생활용수 공급 및 7,000헥타르 이상의 농지에 관개수 제공 예정.
 - 약 40메가와트(MW) 규모의 수력 발전이 포함되며, 식량 안보, 기후 회복력, 관광, 양식업 및 레크리에이션 지원함.
 - 재무 전망: 내부수익률(IRR) 약 2.7%, 24년의 투자 회수기간 예상, 수익원은 용수요금, 관개 요금, 전력 판매 수익.
- (추진현황)
 - 2023년 5월: 민관협력(PPP) 프레임워크 하에 사업제안요청서(EOI) 발행 — Thuci 댐은 계약번호 28번으로 포함됨.
 - 2024년 8월: BOT 방식에 따른 민간 파트너 협의 진행 확인 — Kimotho 차관은 댐의 용량이 2,300만 m³, 높이 84 m로 약 16,309에이커 관개 및 40 MW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.
 - 2025년 7월: 사업 공식 재개 — PPP 방식에 따른 설계·조달·시공·재원조달(EPCF) 절차 착수 및 대국민 공표 완료.

○ (주요상황) 2025년 중반부로 본 사업은 조달 단계에 다시 진입하여 EPC-F PPP 구조 하에 진행 중. 해당 댐은 다목적 설계로, 생활용수 공급, 관개, 40 MW급 수력 발전, 양식업, 생태 관광 등을 포함. 약 2.7%의 내부수익률(IRR) 및 24년의 투자 회수 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재무 모델이 장기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. EWASCO, 국가관개청(National Irrigation Authority), PPP국(PPP Directorate), 민간 부문 입찰자가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 및 사업 추진 담당 예정.

33) <https://opportunities.invest.go.ke/opportunities/opportunity/thuci-dam-project-1>

④ Rironi-Naivasha-Kisumu-Malaba SGR Extension³⁴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케냐 정부 (케냐 철도공사)
- (도급사) 미정 (입찰 및 자원 조달 단계 진행 중)
- (사업비) 약 KES 6,450억 (약 USD 53억)
- (펀딩) 중국 컨소시엄의 대출 40%(중국 수출입은행 포함) + 케냐 정부 30% + 케냐-중국 합작 민간 금융기관 30%, 2024/25 회계연도에 케냐 정부는 초기 착공 예산으로 KES 165억 배정
- (사업내용)
 - 총 연장 : 약 475km, 나이바샤(Naivasha)-키수무(Kisumu) (2B단계)-말라바(Malaba) (2C단계) 구간 포함
 - 나록(Narok), 보메트(Bomet), 냐미라(Nyamira), 키수무(Kisumu), 부시아(Busia) 지역에서 토지 보상 관련 대국민 고지 진행
 - 화물 운송 및 역내 통합 지원 - 케냐를 우간다, 콩고민주공화국(DRC) 등 이웃국과 연결하는 전략적 철도 인프라
- (추진현황)
 - 2023~2024년: 케냐와 우간다가 SGR 연장을 위한 역내 공동 자원 조달 협력 진행, 우간다는 말라바~캄팔라 구간 EPC 계약을 터키의 Yapı Merkezi에 발주함.
 - 2024년 5월: 중국 수출입은행, 케냐 SGR 2B-2C 단계에 대해 재투자 의사 표명
 - 2025년 4월: 중국 컨소시엄, 전체 자금의 40% 투자 및 통행료 회수 방식에 동의
 - 2025년 5월: 케냐 의회, SGR 연장을 위한 KES 165억 예산 배정
 - 2025년 7월: 에너지부 장관 데이비스 치르치르,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착공 예정 발표
 - 우간다 측은 자국 구간에 대한 사전 준비 공사에 착수함

- (주요상황) 정부의 첫 자금 배정은 사업 착수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의미. 중국 측의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은 통행료 기반 수익 회수 방식을 포함,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. 우간다 및 DRC와의 연계 추진으로 북부회랑(Northern Corridor) 전략계획에 따른 지역 통합 및 연결성 제고를 목표. 케냐 정부는 운영, 화물 운송권, 차량 확보 부문에 대해 민관협력(PPP)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.

34) https://www.scmp.com/news/china/diplomacy/article/3305483/after-delay-new-chinese-funding-plan-will-help-extend-railway-uganda-kenya-says?utm_source=chatgpt.com

2 협력센터 운영 보고

- 해당사항 없음